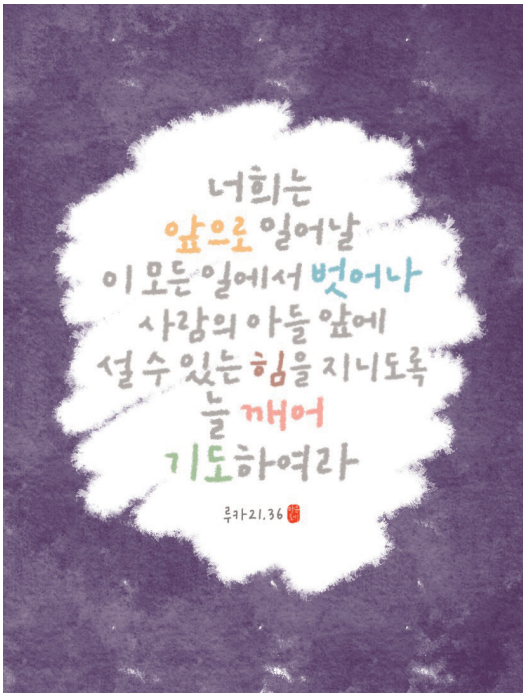


## 청년주보



말씀그림 | 박유스티나

**입당송** 시편 25(24), 1-3 참조

하느님, 당신께 제 영혼 들어 올리나이다. 저의 하느님, 당신께 저를 맡기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원수들이 저를 보고 좋아라 날뛰지 못하게 하소서. 당신께 바라는 이는 아무도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이다.

**제1독서** 예레 33, 14-16**화답송** 시편 25(24), 4-5, 7-8, 9, 10과 14(◎ 1)

◎ 주님, 당신께 제 영혼 들어 올리나이다.

○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 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 저를 가르치시어 당신 진리로 이끄소서. 당신은 제 구원의 하느님이시옵니다. ◎

○ 주님은 어질고 바르시니 죄인들에게도 길을 가르치신다. 가련한 이 올바른 길 걷게 하시고 가난한 이 당신 길 알게 하신다. ◎

○ 주님의 계약과 법규를 지키는 이들에게 주님의 모든 길은 자애와 진실이라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와 사귀시고 당신의 계약 그들에게 알려 주신다. ◎

**제2독서** 1테살 3, 12-4, 2**복음환호송** 시편 85(84), 8

◎ 알렐루야.

○ 주님, 저희에게 당신 자애를 보여 주시고 당신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

**복음** 루카 21, 25-28, 34-36**영성체송** 시편 85(84), 13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청년 인터뷰

## 별처럼 빛나는 하느님의 자녀 임나희 레아

**Q1. 교회 활동을 하며 하느님을 크게 느낀 순간이 있나요?**

청년 성서모임의 창세기 연수를 마치고 만남의 잔치에 참여했을 때, 연수자들의 손을 잡고 함께 울동 찬양을 하는 봉사자들의 반짝거리는 눈빛을 잊지 못합니다. 정말로 기쁘게, 웃으면서 봉사하는 모습을 보며 봉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봉사하는 사람들은 제게 다른 이들을 하느님의 집으로 초대할 수 있게 하는 힘과 원동력이 됩니다. 저도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신 하느님께서 제 곁에 고마운 사람들을 많이 보내 주시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Q2. 어떤 계기로 세례를 받았나요?**

친인척 모두 개신교여서 자연스레 모태신앙으로 개신교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파리의 노트르담 성당을 보고 천주교에 관심을 갖게 된 동생을 위해 예비신자 교리를 알아보신 어머니께서 저에게도 권해주셔서 23살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믿었던 종교를 두고 개종하는 것에 대해 세례를 받기 이틀 전까지도 고민했지만, 지금은 제 인생에서 제일 잘한 선택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Q3. 마음에 새기고 있는 성구는 무엇인가요?**

“하느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 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필리 2, 15)

저의 고정된 기도이기도 한 이 성구는 제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사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묵상하게 합니다. 주님께서 제게 청년 전례단, 연합회, 청년부 홍보부 등 다양한 모습으로 봉사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봉사하며 마음이 가난해질 때나 유혹에 흔들릴 때, 세례 성사의 은총으로 받은 힘과 용기를 기억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는 말씀입니다.

임나희 레아 자매님의 이야기는 4면에서 계속됩니다.



이영중 미카엘 신부님  
거여동 성당

#### + 찬미예수님

우리는 삶에서 많은 것을 기다립니다. 예를 들어, 드라마를 볼 때에도 한 주 한 주 기다려야 하고, 맛집에서 줄 서 있는 사람이나 음식을 기다려야 합니다.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기 전 5분 정도의 시간은 광고를 보며 인내심 테스트를 합니다. 약속시간에 늦는 사람은 기다려줘야 하고, 정해진 인생의 목표가 이루어지길 기다리기도 합니다. 이 모든 기다림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다가올 때 설레고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린 적이 있습니까? 대림 시기의 시작점에 선 우리는 삶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루카 21,27) 이처럼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당신이 다시 오실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바라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그분께서 오신 줄도 모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대림 시기는 예수님의 탄생을 한 번 축하하기 위해 준비하는 시기가 아니라, 늘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기억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기다려지는 시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 순간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세상에 예수님 말고도 기다릴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시적인 만족과 기쁨을 먼저 기다리다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서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루카 21,36)

이처럼 기도는 삶의 순간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생각할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제2독서에서 말하듯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힘을 북돋아 주시어,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실 때, 여러분이 하느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흠 없이 거룩한 사람으로 나설 수 있게”(1테살 3,13) 될 것입니다. 아멘.



#### 주님이 머문 자리

오늘도 당신께서 이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마음 깊이 느낍니다.

주님, 당신의 이름 아래 모여 앉은 이 사람들이

당신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고

당신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데에 힘쓰게 하소서.

[청년주보편집부 / 최유진 스타ler]



김건태 베드로 수사  
예수회

# 건태야, 베드로는 잘 지내니?

## Q1. 꿈나무마을에 파견받았을 때 어떤 기분이었나요?

참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수회에 입회하기 전 처음 사회복지공부를 시작한 동기가 바로 사회복지사가 되어 점수가 낮은 학생들의 기를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꼴찌를 위한 방과 후 교실 같은 것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읽으셨는지 하느님께서 예수회 입회 후 시간이 지나 저를 아이들 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마치 몇 수 앞을 보고 바둑의 포석을 두신 것 같은 그분의 섭리가 느껴졌습니다.

## Q2. 꿈나무마을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학원에서 공부 못한다고 꾸중을 들은 학생도 학원이 끝나면 집에서 엄마에게 투정을 부릴 수도 있고 맛있는 간식을 해 달라고 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나는 아이들은 밖에서 속상한 일이 있어도 집에서 투정을 부릴 엄마가 없는 아이들입니다. 또 친구와 싸우고 돌아오면 잘했건 잘못했건 일단은 내 편을 들어주는 아빠도 없는 아이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저는 아이들의 편이 되고 싶었습니다. 비록 아이가 잘못했을지라도, 일단은 아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 Q3. 꿈나무마을에서 언제 제일 당황스러웠나요?

아이들과 만난 지 얼마 안 되어서 이름과 얼굴을 익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아이가 “수사님은 언제 가세요?”라는 질문을 했는데 순간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언제 헤어질 거냐고 물어보는 질문을 받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글쎄, 관구장 신부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야 하지 않을까?” 대답했는데, 아이와 헤어진 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이곳 아이들에게 이별이란 일상생활입니다. 친절한 어른이 와서 마음의 문을 열었는데, 사정이 생겨서 이별하는 경험을 여러 번 겪은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일방적인 이별입니다. 그래서 SNS에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나는 전화번호를 바꿀 생각이 없으니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저는 단순히 일하러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평생 친구를 사귀러 이곳에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 Q4. 꿈나무마을에서 살면서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좋은 점 중의 하나는 예수님께 예전보다 더 자주 여쭙보게 된다는 점입니다. 제가 신심이 깊어진 건 아니고, 자주 예수님께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마태오가 학교에 가기 싫어해서 별점이 높습니다. 자칫 졸업을 못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예수님, 요한은 일류대학을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점수가 좀 부족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처럼 아이들과 관련한 문제가 있으면 다른 분과도 상의하지만, 우선은 예수님께 여쭙보게 됩니다.

## Q5. 언제 도전이 되나요?

때로는 예수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십니다. 말이 좋아서 질문이지, 저에게는 큰 도전입니다. “건태야, 베드로는 잘 지내니?” 베드로는 말에 가시가 있고 예의가 없어, 가까이하면 화가 나고 상처를 입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에게 두세 번 갈 때 한 번이나 갈까 말까 한 아이입니다. 저로서는 별로 친해지고 싶지 않은 아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그 친구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친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그 친구를 잘 돌보아 주라고 부탁하십니다.

## Q6.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꿈나무마을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은 예수님께서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는 소중한 아이들과 길을 떠나는 체험입니다. 물론 저 혼자 아이들과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예수님께서 앞장서시고 길을 헤쳐 가십니다. 또 악의 어두움이 닥치면 예수님께서 저희를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저는 그 곁에서 작은 일이나 예수님을 거들어 드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희 꿈나무마을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김건태 수사님은 예수회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꿈나무마을에서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함께 보아요  
www.inigo.kr

inigo

## 하느님의 보기 좋은 자녀

임나희 레아 / 역촌동 본당

“주님의 보기 좋은 자녀, 레아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늘 기도 끝마디마다 놓치지 않고 꼭 붙이던, 저의 기도 지향 1번으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처음 세례를 받았을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느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을 하였는데, 하느님께서 주신 달란트, 재능으로 세상에 이로운 역할을 하는 것, 사람들에게 많은 기쁨을 주는 것이 하느님께서 저에게 주신 소명이자 하느님께 받은 사랑을 보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시각 디자인을 전공했고 디자이너이자 큐레이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이 일을 사랑하고, 하느님께서 저에게 주신 소중한 달란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의 달란트에 대해 의심이 많았었습니다. 늘 재능이 남들보다 못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혔고, 그러한 생각이 새로운 디자인 작업을 할 때마다 창작의 고통과 맞물려 공공 앞으 작업을 완성하곤 하였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힘들게 완성한 작업물을 볼 때면 언제 그랬냐는 듯 고통은 사라지고 보람과 뿌듯함이 느껴졌지만, 종종 그 잔향마저 빨리 사라져 버리곤 하였습니다. 나름 노력하며 기회를 통해 실력을 보이고 싶었지만 필요할 때만, 힘들 때만 기도하는 나약한 신자였기에 원하는 만큼 실력이 나오지 않을 때마다 기도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저는 소위 말하는 ‘잘나가는 디자이너’가 되는 것이 주님께 잘 보이는, 사랑받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저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느님이신데... 그냥 존재만으로도 사랑받는 자녀였을 텐데... 왜 그렇게 매달렸을까요? 실력이 잘 나오지 않을 때면 속상하고 자연스럽게 자신감도 떨어졌으며, 자존감에도 타격이 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청년 활동에 집중하였고 피로도 더 많이 다녔습니다. 그렇게 상처를 입고 치유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저는 마치 흙을 빚어 쌓아 올라가는 도자기처럼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또한 청년 활동을 하며, 감사하게도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청년부 홍보부와 인연이 닿아 청년부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공유되는 카드 뉴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디자인을 통해 청년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하느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봉사입니다.

〈그리스도도는 살아 계십니다〉의 177항 중, 교황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의 빛과 희망을 퍼뜨릴 수 있는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께서서는 바라십니다. 주님께서서는 여러분의 용기, 담대함, 열정을 믿으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홍보부 부서원들이 만드는 콘텐츠가 청년들에게 어떻게 또 얼마나 많이 가닿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수많은 청년 중 한 사람에게라도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선물에 감사하며 제가 주님의 빛과 희망을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주님께서 필요하신 때에 바로 응답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림 시기가 시작되어 전례적으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한 해에도 가톨릭 청년으로서 하느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심을 잊지 않는다면 결심들이 크든 작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 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날 수 있도록 하십시오.”(필리 2,15)

###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청년부 주보편집부 부서원 모집

**대상**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봉헌하고 싶은 분! 따뜻한 사랑 안에서 봉사의 즐거움을 느끼고 싶은 분! 청년주보를 통해 하느님을 알리고, 하느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가길 원하는 가톨릭 청년

**내용**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등의 디자인 프로그램에 능숙하여 청년주보의 디자인, 그림을 통해 봉사하고자 하는 청년을 기다립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소중한 당신을 부르십니다.

**문의** 02-762-5071~2 (담당간사 토, 일 휴무)